

첨단에 감성을 입힌다

Digi Log

최근 '디지로그'에 대한 관심이 높다. '디지로그'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로, 0과 1로 대변되는 디지털문화 위에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입혀 첨단 정보 사회로 나아가자는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하다. 이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 받으면서 가히 '디지로그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감성

핸드폰 내에서 게임처럼 강아지를 키운다? 수동을 닮은 복고풍 디지털 카메라의 판매가 부쩍 늘었다. 자신이 원하는 사진이 찍힌 신용카드를 들고 다닌다. 핸드폰에는 FM수신 기능이 추가되고, 컴퓨터에는 개 개인의 개성이 묻어나는 서체들이 넘쳐난다. 사람들은 '싸이'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친해지며, 도토리를 선물한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디지털의 편리함을 이용하고 있지만, 아날로그의 감성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디지로그'는 알게 모르게 이미 우리의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디지로그'란 말은 이어령 선생이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어령 선생은 70이 넘는 나이지만 책을 읽다가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스캐너를 이용해 저장해 놓고, 머릿속에 떠오른 문장들은 태블릿 판에 메모하여 놓는다. 본인 스스로도 '디지로그'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아날로그의 중요성을 잊지 말자

인쇄는 종이를 통해 나누는 대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인쇄기를 사용해 인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것이 고객들에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업계는 첨단 디지털보다는 예전부터 아날로그 성격이 강했다. 섬세한 디자인에서부터 정확한 색표현까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아날로그였다. 그래서 인쇄업계도 '디지로그'의 바람이 불고 있긴 하지만, 이와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

최근 인쇄업계는 프리프레스(Prepress), 프레스(Press), 포스트프레스(Postpress)간의 데이터 흐름이 온라인화 되고, 생산관리, 회계, 경영관리를 통합하는 디지털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이렇듯 인쇄업계는 최근 디지털화를 통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디지로그'의 개념은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근본적인 아날로그의 중요성을 잊지 말자는 의미이다.

이에 지난 6월, 피알아트는 인쇄업계내의 '디지로그'를 좀 더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풍부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DPEC'을 구성했다. 'DPEC'은 'Digital Printing Expert Club'의 약자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통합과 조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는 미래 지향적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앞으로 인쇄산업공정을 효율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인쇄 트렌드를 연구할 예정이다.

김정상 기자 sang@print.or.kr